

# ‘세계 최강’ 안세영, 한국 女 배드민턴 최초 ‘그랜드슬램’

### 아시아선수권 결승서 중국 왕즈이 2-1 제압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이어 대기록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아시아선수권 우승을 차지하며 생애 첫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2일 중국 난징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2-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의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회에서 2022년 동메달, 2023년 은메달, 2024년 8강 탈락, 지난해 부상 불참 등으로 아쉬움을 삼킨 바 있다.

특히 이날 우승으로 값진 대기록을 달성했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모두 휩쓸었던 안세영은 아시아선수권마저 제패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한국 배드민턴 여성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안세영은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역대 최고 누적 상금(100만3175달러)을 모두 경신하며 여자 배드민턴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올해 역시 말레이시아오픈 3연패, 인도오픈 2연패, 아시아 남녀단체 선수권 생애 첫 우승에 이어 아시아선수권 개인전까지 점령하는 금자탑

을 쌓아올리면서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은 단 한게임만 내준 채 우승을 따냈다. 대회 32강전에서는 여자아민(싱가포르·세계랭킹 32위)을 2-0으로 가볍게 제압한 뒤 16강전에서 응우옌투이린(베트남·세계랭킹 26위)을 2-0, 8강전에서 미야자키 도모카(일본·세계랭킹 9위)를 2-0으로 꺾었다. 4강전에서는 한국의 심유진(인천국제공항·세계랭킹 15위)을 2-0으로 완파하고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결승전에서는 직전 대회에서 쓴맛 안겼던 왕즈이를 만났다. 안세영은 전영오른 결승에서 왕즈이에게 패하며 36연승 행진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18승 5패로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결과로 드러났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승리를 따내면서 통산 상대 전적을 19승 5패로 벌렸다.

안세영은 1게임에서 3-0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 왕즈이는 4연속 득점으로 추격에 나섰다. 안세영이 7-7에서 연속 4득점으로 다시 달아났다. 12-8에서는 다시 3득점을 올리면서 첫 게임을 가져왔다.

2게임은 상대의 차지였다.



안세영은 12일 중국 난징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2-1로 꺾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안세영이 1-1에서 4점을 내리 헌납하면서 끌려갔다. 왕즈이는 주도권을 가지고 흔들면서 좀처럼 점수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안세영은 14-20에서 3점을 따내면서 분위기가 반전에 나섰으나 결국 격차를 줄이지 못한 채 17-21로 2게임을 내

줬다.

3세트에서는 안세영의 집중력이 빛났다. 안세영은 경기 초반부터 네트 플레이로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켰다. 이후 연속 3득점을 따내는 등 9-3 리드를 가져왔다. 14-10과 15-13에서는 각

각 연속 3실점과 2실점으로 고전을 했지만, 게임 막바지 안세영의 투지가 발휘됐다. 15-15 상황에서 4점을 뽑으며 승기를 가져왔고, 19-18에서는 연속 2득점을 터트리면서 우승을 확정 지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kwangnam.co.kr

## KIA, 한화 3연전 ‘스윙승’…4연승 질주



### 주말 마지막 경기서 9-3…올리, 5이닝 2실점 역투 장단 13안타 몰아쳐…한준수 9회초 빼기 솔로포도

KIA 타이거즈가 한화이글스와의 3연전을 휩쓸었다.

KIA는 12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한화와의 주말 3차전 경기에서 9-3으로 승리했다.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한화를 각각 6-5로 꺾었던 KIA는 이로써 한화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로 마무리했다. 또 4연승에 성공한 KIA는 6승 7패 승률 0.462를 기록했다.

이날 KIA는 데일(유격수)-김호령(중견수)-김선빈(2루수)-김도영(3루수)-카스트로(좌익수)-나성범(지명타자)-한준수(포수)-박상준(1루수)-박재현(우익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로는 아담 올리가 나섰다. 총 92개의 공을 던진 그는 5이닝 5피안타 4사구 7탈삼진 2실점으로 역투했다.

KIA는 1회초부터 선취점을 뽑아냈다.

선두타자 데일은 우전 안타를 터뜨렸다. 김호령 뜬공 이후 김선빈은 땅볼을 기록, 그 사이 데일은 3루에 안착했다. 후속타자 김도영은 좌측을 완전히 가르느 1타점 적시 2루타를 만들면서 경기는 1-0이 됐다.

올리는 1회말 상대 선두타자를 삼진으로 처리한 뒤 페라자를 볼넷으로 내보냈다.

이어 문현빈에게 병살타를 유도해내면서 세 타석 만에 이닝을 끝냈다.

2회말 역시 상대 강박호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뜬공 1개와 삼진 2개로 실점 없이 이닝을 막았다.

3회말에는 승부의 균형이 맞춰졌다. 올리는 상대 선두타자를 삼진으로 처리한 뒤 심우준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이원석 땅볼 이후에는 페라자에게 1타점 적시타를 내줬다. 후속타자 문현빈 안타 이후 강박호를 땅볼로 처리하면서 추가 실점은 면했다.

KIA는 4회초 다시 리드를 잡았다.

선두타자 카스트로가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2루타를 폭발시켰다. 타석을 이어받은 나성범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뽑아냈다. 한준수 중견 안타 이후에는 김규성이 희생번트에 성공했다. 1사 2-3루 찬스에서 타석에 오른 박재현은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터뜨렸고, 그

사이 나성범이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이후 데일이 희생플라이를 기록하면서 한준수가 홈인. 경기는 4-1로 벌어졌다.

올리는 4회말 2타와 삼진 1개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든 뒤 5회말에는 위기를 맞았다.

상대 허인서 삼진 이후 심우준에게 좌익수 앞 안타를 허용했다. 1사 2루에서는 이원석에게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맞았다. 이후 2타점의 볼넷을 내주면서 2사 만루에 몰렸다. 이어진 상대 채은성과의 승부에서는 5구 끝에 헛스윙 삼진을 얻어내면서 이닝을 마무리 지었다.

6회초에는 KIA의 추가점이 나왔다.

선두타자 한준수가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었다. 후속타자 김규성의 희생번트도 한준수는 2루로 진루했다. 박재현 타석에서는 상대 1루수 실책이 나오면서 한준수에 홈에 들어왔다. 경기는 5-2가 됐다.

KIA는 6회말 올리 대신 한재승을 마운드에 올렸다. 한재승은 2타와 삼진으로 삼자범퇴 이닝에 성공했다.

7회초 3점을 추가하며 빅이닝을 만든 KIA는 8회말 1실점으로 막아냈다.

9회초에는 한준수의 솔로포로 다시 격차를 벌렸고, 9회말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 지으면서 경기는 9-3 KIA의 승리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kwangnam.co.kr



KIA는 12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한화와의 주말 3차전 경기에서 9-3으로 승리했다. 사진제공=KIA 타이거즈

## 배우 남민우·빙속 김길리, KIA 승리기원 시구

### 15~16일 키움과의 홈경기서…‘금빛 기운 전해지길’

KIA 타이거즈가 배우 남민우와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길리를 초청해 팬클럽 시구 이벤트를 연다.

남민우와 김길리는 오는 15~1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시구를 맡으며 그라운드에 선다.

먼저 15일 경기에는 뮤지컬 ‘난쟁이들’, 드라마 ‘신병’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출신 배우 남민우가 시구자로 나서며, ‘난쟁이들’에서 함께 출연중인 배우 김세진이 시타, 이견희가 시포를 맡는다.

남민우는 “무등야구장 근처에서 태어나 태어난 순간부터 타이거즈 팬이었다. 33년간 타이거즈 정신으로 살아온 내가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오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승리의 기운이 선수단에 전달돼 꼭 승리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중 클리닝타임에 남민우, 김세진, 이견희의 뮤지컬 ‘난쟁이들’ 특별 공연이 준비돼 있다. 이날 교대 이벤트를 통해 공연 관람 초대권도 증정할 예정이다.

16일 경기에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길리



가 시구를 한다. 김길리는 지난 2월에 열린 밀라노·코르티나패럴림픽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1500m와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김길리는 “작년에 이어 다시 챔피언스 필드에서 개최 영광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2관왕의 좋은 기운을 담아 왔다. 금빛의 기운이 선수단에 전해져 이번 시즌 타이거즈가 꼭 정상에 섰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경기 중 이닝 교대 이벤트를 통해 김길리의 사인볼을 증정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kwangnam.co.kr

## 광주시민체력증진센터, 시민 건강 지킴이 ‘우뚱’

### 맞춤형 운동처방부터 재활까지 관리 서비스 제공

광주시체육회가 시민체력증진센터 운영을 강화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 힘을 쏟는다.

12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시민체력증진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5층에 자리해 체계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 운동처방사와 체력측정 인력이 상주해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체력 검사, 맞춤형 운동처방, 스포츠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시체육회는 시민체력증진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참여형 사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체육회장배 육상대회에서는 ‘체력왕 선발대회’를 운영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유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초·중·고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관련 단체 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전 예약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기초체력 측정 5349명, 스포츠 재활 754명, 체력증진교실 448명 등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며 목표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건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체육회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여겠다”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kwangnam.co.kr